

국내와 세계를 넘나드는 '월드스타' 배우나

“극한의 무술훈련 덕에 웬만한 액션 끄떡없죠”

미드 '센스 8' 마지막 촬영

사극 '킹덤' 주인공 발탁도

첫 사극도전 "매력적인 역할"

배우나(38·사진)가 '센스8'에 이어 '킹덤'으로 '월드스타' 행보를 이어간다. 두 작품 모두 세계적 동영상 스트리밍업체 넷플릭스의 오리지널 드라마로, 전 세계에 서비스된다. 연예계에서는 “배우나는 세계시장에서 통하는 스타”라고 말한다.

배우나는 최근 '센스8'의 마지막 에피소드 촬영에 돌입했다.

시즌2까지 제작된 후 내년 2시간짜리 마지막 스페셜 에피소드를 내놓는 '센스8'은 지난 4일 크랭크인했다. 크랭크인에 앞서 배우나는 2일 독일 베를린에서 '센스8' 대본 리딩에 참석했고, 잠시 귀국해 영화 '마약왕' 마지막 촬영을 마친 뒤 다시 '센스8' 촬영을 위해 8일 출국했다.

앞선 시리즈와 마찬가지로 '센스8'은 촬영장소와 내용을 비밀에 부치고 있으며, 배우나는 앞으로 6~7주간 해외에서 촬영한다.

'센스8'은 '매트릭스' 시리즈로 대표되는 세계적인 감독이자, 나란히 성전환을 통해 남성에서 여성으로 변신한 릴리-라나 위소스키 자매가 만드는 SF 대작 드라마다. 시즌1과 2가 세계 10여개국을 무대로 펼쳐졌고, 광대한 스케일의 독특하고 강렬한 이야기로 두터운 매니아층을 낳았다.

당연히 시즌3이 예상됐으나 막대한 제작비로 넷플릭스가 제작을 최종 포기하자 세계 각국에서 넷플릭스로 향의가 쏟아졌고 시즌3 제작 청원운동이 거세게 일어났다. 결국 넷플릭스는 2시간짜리 스페셜 에피소드를 제작해 '센스8' 팬들을 달래기로 했다. 스페셜 에피소드의 공개 시점은 내년 4월로 알려졌다.

배우나는 이 영화의 주인공이다. 세계 각지에 흩어진 8명이 서로의 생각과 능력을 공유하는 '센스8'에는 다양한 인종의 배우들이 출연하지만, 그중에서도 배우나의 비중이 가장 크다. 그는 이 드라마에서 지적 능력이 뛰어난 사업가이자 싸움에 능한 '여전사' 캐릭터를 맡아 다채로운 모습을 보여줬다.

배우나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센스8' 시즌3 제작이 무산됐을 때 정말 힘들었고 한달간은 굉장히 우울하게 보냈을 정도로 이 작품을 사랑한



다”고 말했다.

그는 “극 중 내가 맡은 역할이 수많은 한계적 액션에 부딪히는 역할이라 매일 운동과 무술 훈련을 하면서 극한체험을 했다”며 “너무 힘들어 리듬머신 위에서 눈물 흘리면서 '내가 도대체 왜 이런 걸 하고 있나' 싶을 때도 있었지만 하나하나 이겨내며 시즌1과 2를 끝내고 나니 해냈다는 보람에 너무 뿌듯했다”고 밝혔다. 이어 “'센스8' 끝내고 나니 웬만한 액션은 힘들지 않았다”며 “다시 못 만날 캐릭터가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게 너무 아쉽다”고 덧붙였다.

비록 '센스8'은 끝나지만 세계 시청자와 배우나의 만남은 계속된다. 배우나는 넷플릭스가 제작하는 한국 드라마 '킹덤'의 주인공으로 캐스팅됐다. '센스8' 촬영 직후 11월 말부터 '킹덤'을 찍는다.

'킹덤'은 '시그널' '사인'의 김은희 작가가 쓰는 판타지 사극으로, 조선시대 좀비가 출몰하는 독특한 이야기다. 김은희 작가의 신작이라는 점에서 기획 단계부터 관심이 집중된 '킹덤'은 6부작으로 사전 제작돼 내년 하반기 공개될 예정이다. 드라마지만 영화 같은 스케일을 자랑한다.

데뷔 이래 사극을 한 번도 찍지 않았던 배우나는 이 작품을 통해 처음으로 사극에 도전한다. 도회적이고 현대적인 이미지의 배우나는 '킹덤'이 사극이라는 점 때문에 몇달간 고심했지만, 좀비를 소재로 한 독특한 설정에 마음이 끌려 결국 러브콜에 응했다.

배우나는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을 즐기지만 사극이 비주얼적으로 과연 나한테 어울릴까 오랜 시간 고민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하지만 국본이 너무 매력적이라 도전해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사실 그의 '킹덤' 출연은 스케줄상으로도 무산될 가능성이 높았다. 처음에는 '센스8' 촬영과 겹쳤기 때문이다. 하지만 넷플릭스와 제작진은 배우나를 잡기 위해 촬영일정을 뒤로 미뤘고, 결국 배우나는 '센스8'을 끝내자마자 '킹덤'에 합류하게 됐다.

소속사 셋별당엔터테인먼트는 “출연 제안은 영화 '터널'을 함께 한 김성훈 감독님으로부터 받았다”며 말을 아꼈으나, 드라마를 제작하는 넷플릭스 역시 배우나 캐스팅을 강력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넷플릭스는 '센스8' 이전에도 할리우드 영화 '클라우드 아틀라스'와 '주피터 어센딩', 일본 영화 '공기인형'과 '린다린다린다' 등을 통해 세계 무대에서 자신만의 필모그래피를 형성해온 배우나의 이력에 주목하고 있다.

배우나의 '월드스타' 행보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세계적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의 모델인 그는 지난 3일 파리 패션위크에 참석하는 등 작품 촬영 사이사이 '셀리브리티'(Celebrity, 유명인사)로서도 세계 무대에서 바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연말뉴스

'택시운전사' 부일영화제 3관왕

최우수 작품상·남우주연상·독자심사단상

1천200만 관객을 불러모은 올해 국내 개봉 최대 흥행작 '택시운전사'(장훈 감독)가 부일영화제 3관왕의 영예를 안았다.

'택시운전사'는 13일 오후 부산 벡스코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제26회 부일영화제 시상식에서 최우수 작품상, 남우주연상과 관객이 직접 선정하는 부일독자심사단상을 받아 3관왕에 올랐다.

5·18 민주화운동을 배경으로 서울 택시 기사가 독일에서 온 기자를 태우고 광주로 가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다.

송강호가 택시 기사 '만섭'을, 독일 배우 토마스 크레취만이 기자 위르겐 힌츠페터역을 맡았다. 유해진·류준열 등이 출연했다.

주연 송강호는 남우주연상을 받았다. 1980년 5월, 어린 딸을 키우는 서울의 평범한 택시운전사가 광주에 가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통해 가슴을 울리는 연기를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최우수감독상은 '아수라'의 김성수 감독에게 돌아갔다. 여우주연상은 '죽여주는 여자'의 윤여정, 남우조연상은 '불한당: 나쁜 놈들의 세상'의 김희원, 여우조연상은 '군함도'의 김수안이 각각 받았다.

신인남자연기상은 '꿈의 제안'의 구교환, 신인여자연기상은 '박열'의 최희서가 각각 차지했다.

각본상은 '박열'의 황성규, 촬영상은 '악녀'의 박정훈, 음악상은 '꿈의 제안'의 플레시 플러드 달링스, 미술상은 '군함도'의 이후경에게 돌아갔다. 유현목 영화예술상에는 고(故) 김지석 부산국제영화제 부위원장님이 선정됐다. 고인을 대신해 김동호 부산국제영화제 이사장이 무대에 올라 상을 받았다.

부일영화상은 지난 1958년 출범한



배우 송강호



영화 '택시운전사' 한 장면.

국내 최초의 영화상이다.

◇ 수상자(작) ▲ 최우수 작품상 '택시운전사' ▲ 최우수감독상 김성수('아수라') ▲ 남우주연상 송강호('택시운전사') ▲ 여우주연상 윤여정('죽여주는 여자') ▲ 남우조연상 김희원('불한당: 나쁜 놈들의 세상') ▲ 여우조연상 김수안('군함도') ▲ 신인감독상 이현주('연애담') ▲ 신인남자연기상 구교환('꿈의 제안') ▲ 신인여자연기상 최희서('박열') ▲ 각본상 황성규('박열') ▲ 촬영상 박정훈('악녀') ▲ 음악상 플레시 플러드 달링스('꿈의 제안') ▲ 미술상 이후경('군함도') ▲ 특별상 장훈('택시운전사') ▲ 유현목영화예술상 고(故) 김지석 /연말뉴스

TV 프로그램 16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4 columns: Channel (KBS1, KBS2, MBC, KBC/SBS), Time, Program Name, and Description. Lists various TV shows and their broadcast times for October 16th.

EBS1

Table with 4 columns: Time, Program Name, and Description. Lists EBS1 TV programs for October 16th.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교

10월 16일(음 8월 27일 丙子)

Table with 2 columns: Zodiac Sign (子, 丑, 寅, 卯, 辰, 巳) and Fortune Prediction. Provides daily fortune predictions for each zodiac sign.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원영” ☎010-9790-8237